

**보도자료**

2011년 12월 11일(일)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전파정책기획과 박노익 과장(750-2210)  
전파정책기획과 정영길 사무관(750-2211) j0712@kcc.go.kr**제2차 한·일 전파국장회의 개최****- 2.1GHz 위성IMT대역 및 2.6GHz 대역 등 주파수 조정 현안에 대해 협력 합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오남석 전파기획관과 스즈키 시게키 일본 총무성 전파부장을 대표로 하는 ‘제2차 한·일 전파국장 회의’를 ‘11. 12. 8.(목)~9.(금) 일본 도쿄 미타 공용회의소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1GHz 위성IMT대역, 2.6GHz 등 모바일광개토 플랜 차원에서 이동통신용으로 확보를 추진 중인 주요 주파수 조정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고, 양국이 적극 협력기로 하였다.

일본이 먼저 위성용으로 ITU에 등록하고 있는 2.1GHz 위성IMT대역의 경우 일본측이 현재로서는 위성 발사계획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양국의 공동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력채널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일본이 위성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2.6GHz 대역에 대해서도 ‘13년말까지 양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의 DTV로 인해 예상되는 혼·간섭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6월까지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광개토의 핵심 사안 중의 하나가 일본과의 협력 문제인데, 금번 회의에서 기본 입장 합의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더욱 탄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